

초한대.

초한대——

내방에 품긴 향내를 맞는다.

×

光明의祭壇이 문허지기전.

나는 깨끗한 祭物을보았다.

×

염소의 갈비뼈같은 그의몸.

그의生命인 心志까지

白玉같은 눈물과피를 흘려.

불살려 버린다.

×

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.

선녀처럼 초스불은 춤을춘다.

×

매를 본핑이 도망가드시

暗黒이 창구명으로 도망한.

나의 방에 품긴

祭物의 偉大한香내를 맛보노라.

昭和九年十二月二四日、

초한대

초한대——

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맞는다.

×

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

나는 깨끗한 제물을 보았다.

×

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

그의 생명인 심지까지

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

불살라 버린다.

×

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

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.

×

매를 본 핑이 도망가듯이

암흑이 창구명으로 도망한

나의 방에 품긴

제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.

1934. 12. 24.